

# 세계핵의학회 본부 역할 강화 및 학술대회 준비 만전



이 명 철

세계핵의학회  
회장

우리나라는 2000년 세계핵의학회 총회에서 세계핵의학회 회장국으로 선출된 이래 4년(2002~2006)의 임기 기간 동안 본부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2006년 10월 22일~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9차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를 준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의학계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본부를 맡아 운영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세계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국내 핵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은 물론, 세계핵의학회의 회장이라는 직책과 본부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은 세계핵의학의 대표로서 조직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회원국 및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나는 4년간의 임기 동안 이러한 회장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각 지역의 핵의학의 현황 파악을 통해 전 세계 핵의학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고 국내 핵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세계핵의학회 본부 역할 강화

우리나라가 세계핵의학회의 본부를 맡으

면서 나는 그 동안 세계핵의학회가 학술대회 개최 준비에만 치중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본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실상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핵의학 분야에서 대륙별, 나라별,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세계적 차원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핵의학회 본부가 그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지역 핵의학회 및 관련기구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개발도상국들의 핵의학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해 온 것도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각국 핵의학회 회장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의 핵의학 현황을 파악하고 핵의학 발전이 미비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0년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핵의학 진흥사업을 위한 아시아핵의학협력기구(ARCCNM, Asian Regional Cooperative Council for Nuclear Medicine)를 구축하여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ARCCNM을 주축으로 아시아 지역의 개발 및 미개발 국가의 인적자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ASNM, Asian School of Nuclear Medicine)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유럽 및 중동지역 핵의학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동지역 핵의학기구(Gulf Nuclear Medicine Organization)가 설립되어 지난 3월 1일~3일 제1회 중동핵의학 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핵의학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선진 지역, 특히 미국핵의학회나 유럽핵의학회의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세계핵의학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IAEA와 공동으로 지구촌 핵의학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WHO의 핵심의료기술 분야(Essential Health Technology)에 핵 의학을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세계핵의학회를 운영하면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 정책 연구 위원회(GNG, Global Networking Group)이다. 국제정책연구 위원회는 전세계 핵의학의 현황을 파악하여 핵의학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이동수 교수(서울의대)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각국의 핵의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4개의 관심 분야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70여 개의 세계핵의학회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의 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IAEA의 협조를 받아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재걸 교수(고려의대)가 IAEA에 파견되어 긴밀한 협력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제정책연구 위원회는 세계핵의학회가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세계적 차원의 핵의학 진흥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2006년 학술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계속 국제정책연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핵의학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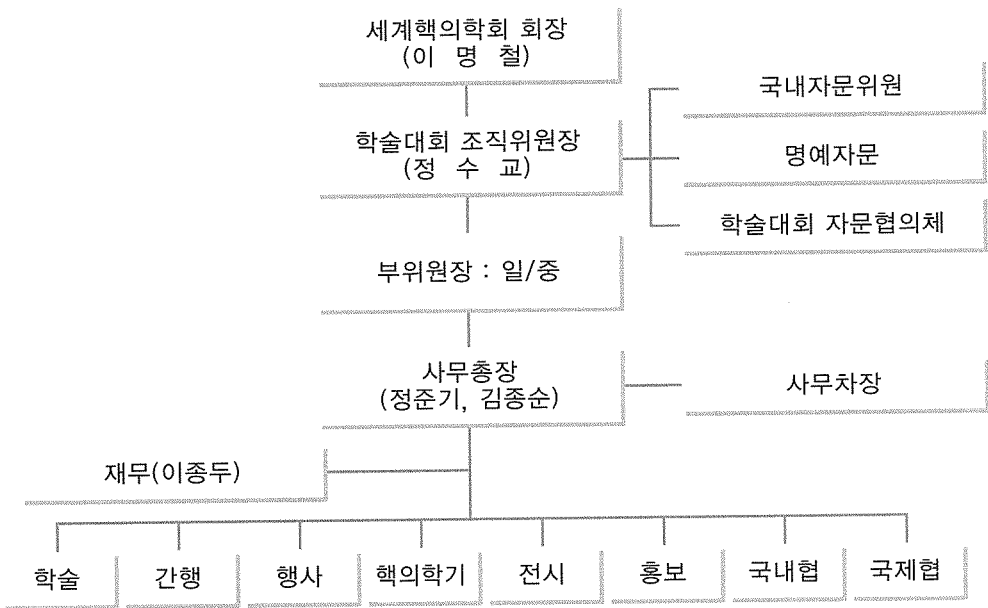
### 2006년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 조직 위원회 분리

세계핵의학회는 지난 1월 8일~9일 이틀간 경기도 가평에서 회장 및 각 분과위원장 및 위원 32명이 모여 워크숍을 갖고 내년으로 다가온 2006년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2006년 10월 22일~27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주요 임원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세계핵의학회 본부와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분리함으로써 본부 운영과 학술대회 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행한 것으로, 정수교 교수(가톨릭의대)를 새롭게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에 임명하고, 협력활동 강화를 위해 복수 사무총장제도를 도

**세계핵의학회 본부**

- 회 장 : 이명철 (서울의대)
- 사무총장 : 정준기 (서울의대)
- 재 무 : 이종두 (연세의대)
- Governing Council (세계핵의학회 집행 기구)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 1) 조직위원장 : 정수교 (가톨릭의대)
- 2) 부 위 원 장 : J. Konishi(일), S. Chen(중)
- 3) 사 무 총 장 : 정준기 (서울의대), 김종순 (방사선보건연구원)
- 4) 재 무 : 이종두 (연세의대)
- 5) 분과위원장
  - 학술 : 김병태 (성균관의대)
  - 간행 : 김창근 (원광의대)
  - 전시 : 손형선 (가톨릭의대)
  - 행사 : 이성용 (가톨릭의대)
  - 홍보 : 홍인수 (연세원주의대)
  - 국내협력 : 김성훈 (가톨릭의대)
  - 국제협력 : 최원식 (가천의대)
- 7) 핵의학기술위 : 정윤영(서울아산병원)
- 8) 사 무 차 장 : 김상은 (서울의대), 최창운(원자력의학원), 서일택 (대한핵의학회)

입, 김종순 원장(방사선보건연구원)을 사무총장으로 추가로 임명함으로써, 정준기 교수(서울의대)와 함께 2인 사무총장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핵의학회 본부와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분리한 것은 본부의 역할과 학술대회 준비 업무 모두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전세계적 차원의 핵의학 발전을 위한 본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그 동안 꾸준히 힘써 온 저개발국가 진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각 지역 핵의학회 및 IAEA, WHO 등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해외홍보 활동도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정비된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학술위원회는 17개 Track을 선정하여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을 학술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올 상반기에 구체적인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 및 국내 관련기관 및 관련학회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외 홍보 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해외 홍보 활동에 주력하여 세계 각국 및 대륙별 핵의학회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각국 핵의학회 회장 및 세계 핵의학 석학들을 한국의 밤에 초청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온 결과 2006년 학술대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부터는 국내 홍보 활동에도 더욱 주력하여 국내 핵의학 관련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 핵의학의 발전 기대

4년간의 회장국 역할과 2006년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 개최는 국내 핵의학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인이나 의사 또는 여러 분야 학자들의 핵의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서 핵의학의 학문적 및 의학적 역할이 강조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특히 의학적 이용 증진뿐만 아니라 방사선기술분야의 발전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더불어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와 교육 및 훈련 개발이 예상되고 특히 최근 전세계에서 급속히 발전 이용되고 있는 양전자단층촬영(PET) 기법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기, 방사성의약품 및 동위원소를 생산하여 국내 수요 공급은 물론 해외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이러한 효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핵의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원자력 주도국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발국가 및 저개발국가에서 핵의학 진흥 활동을 통하여 국가간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외교적인 효과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KRIA**